



우리 언론, 중국의 반면교사(反面教師)?

한 국가의 언론 상황은 그 나라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다원주의의 자유언론과 전체주의의 관방언론이 그 대별(大別)로 볼 수 있겠다.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서 홍보 공사(중국에서는 선전, 또는 신문 공사라고 불렀다)로 근무할 당시 중국 정부 인사나 중국 언론사 간부들을 만날 때면 반드시 듣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왜 한국 언론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가?”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부에서 파견 나온 홍보 담당 공무원이 왜 이를 통제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볼멘소리를 한다. ‘남의 속도 모르고...’ 이럴 때마다 한국 언론의 자유, 기자와 공보관과의 관계 등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설명은 해보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 언론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언론의 중국에 대한 보도는 그들의 치부(恥部)를 자주 보도했던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결과는 우리 독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과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 언론은? 여기서 중국 드라마 역사상 전대미문의 히트작 ‘대장금(大長今)’과 관련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유력 신문으로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신문은 매년 연말이면 그해 가장 인기 없었던 중국 드라마 50편을 인터넷 인기투표로 선정한다. 그 결과 1등한 드라마를 발표하고,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중국 드라마 발전을 논의해 오는 프로그램이 있다.

2008년 말 네티즌 여론 조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사를 개시한 후 몇 주간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한 드라마가 대장금이었

다. 그 당시 대장금은 중국인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대장금이 한국 드라마라는 사실을 모르는 중국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력매체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은 대장금을 재미없는 중국 드라마 1위로 투표를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여론 조사는 우리의 항의를 받고 대장금을 뺀 49편의 중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우리 드라마 대장금을 지목하여 질타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당시 북경을 립픽을 앞두고 양국 젊은이들 간의 미묘한 갈등, 즉 험한정서를 교묘히 표출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중국은 경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 사회, 문화 분야 등 그 외 영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은 당과 정부가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영매체들이다. 언론은 당과 정부의 의중을 읽고, 언론의 이슈를 여기에 맞추어 보도한다. 이러한 제반 현상들을 그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설명한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 행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의 보편적 이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언론에는 책임성 제고, 중국 언론에는 자유의 확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언론계는 한국의 언론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한다. 왜냐하면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지혜가 있는 중국인들은 그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조만간 도래할 민주화에 맞추어 언론의 자유를 신장(伸張)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의 한국 언론의 자유가 보이는 행태를 그들의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기 위해서다.